

SK하이닉스 “현물가 조정 일시적… AI 메모리 호황 장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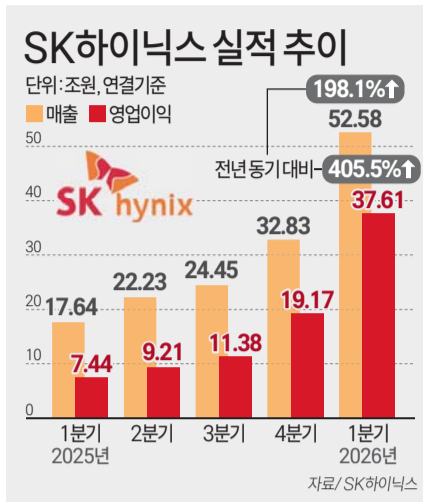
1분기 컨퍼런스콜

AI 인프라 수요 힘입어 실적 급증 영업이익률 72% 창사 이래 최고 HBM4E 하반기 샘플·2027년 양산 용인 투자 앞당기고 ADR 상장 추진

SK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최대 영업 이익률 72%를 기록하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입증했다. 23일 컨퍼런스콜에서는 메모리 가격 강세가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장기화를 예고하고, 차세대 제품 로드맵과 용인 클러스터 투자 확대 등 중장기 청사진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올해 1분기 매출액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분기 기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으며 영업이익률 72%는 창사 이래 최고 기록이다. 경영진은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구조적 수요 증가를 이번 실적의 핵심 배경으로 꼽았다.

◆“현물가 조정은 피크아웃 신호 아냐” 최근 현물 가격 약세를 두고 업황 피크아웃 신호 아니냐는 시장 우려에 박준덕 D램 마케팅 담당은 “현물 시장은 전체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당사 사업 구조와도 차이가 있다”며 “현물 가격의 완만한 흐름은 급격한 상승 이후 일부 유통 채널 물량이 유입되며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피크아웃 신호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고객들이 가격보다 물량 확보를 우선시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어 우호적인 가격 환경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메모리 효율화 기술이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송창석 낸드 마케팅 담당은 “KV 캐시 최적화 기술의 핵심은 동일한 메모리보다 더 많은 사용자와 더 긴 추론을 처리해 AI 서비스 대중화를 앞당기는 것”이라며 “결국 전체 메모리 수요를 키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리처리장치(LPU)가 고대역폭메모리(HBM) 기반 그래픽처리장치(GPU)의 대체재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도 “빠른 응답은 LPU가, 복잡한 연산은 HBM 기반 GPU가 담당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HBM4E 하반기 샘플·2027년 양산… 연내 ADR 상장 목표

차세대 제품 전략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기태 세일즈마케팅 담당은 “HBM4E는 하반기 샘플 공급과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순조롭게 개발 중”이라며 “코어 다이에 1c나노(1cnm) 공정을 적용할 예정으로 수율과 양산 역량도 성숙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3년간 고객 요청 수요가 당사 공급 캐파를 훨씬 상회한다”며 HBM과 일반 D램 간 최적 배분을 통한 전략적 운영도 강조했다.

D램 부문에서는 1cnm 기반 LPDDR6를 하반기 주요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엔비디아 베라루빈 플랫폼에 최적화된 192GB SOCMAMM2는 이달부터 양산에 돌입했다.

낸드는 세계 최초로 321단 퀴드러플레벨셀(QLC) 고객 인증을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국내 생산량의 50% 이상을 321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확장가능메모리 크(CXL), 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차세대 솔루션도 병행 개발 중이다.

투자 관련해 김우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용인 클러스터 페이즈1 완공 시점을 2027년 5월에서 2월로 3개월 앞당겼다고 밝혔다. 페이즈2부터 6까지는 시장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용인 외 추가 팹 건설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기공급계약(LTA)에 대해서는 “과거 LTA와 달리 다양한 방식과 구조적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무 전략에서는 순현금 100조원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주주환원 확대를 병

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CFO는 “배당뿐 아니라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포함한 추가 주주환원 실행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ADR 상장도 공식 확인했다.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관련 서류를 비공개 제출했으며 연내 상장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에 대해서는 헬륨·브롬 등 공급가스 공급선 다변화와 충분한 재고 확보를 마쳤으며, 텅스텐과 액화천연가스(LNG)도 재고 확보와 장기 계약으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중장기 수요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전략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수요가 시성을 고려한 투자를 통해 공급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을 함께 확보 하겠다”고 말했다.

/구병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18일 멈추면 18조 공백” 노조, 노동가치 전면 부각

현장르포

삼성전자 투쟁결의대회

평택사업장서 조합원 4만명 집결 성과급 상한제 폐지·15% 지급 요구 합의 불발 시 내달 21일부터 총파업 사측, 6.2% 인상안 제시에도 입장차 성과급 산정방식 변경 놓고 평행선

“총파업 기간인 18일 동안 생산이 멈추면 약 18조원에 가까운 공백이 생긴다. 이것이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가치다.”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23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300조원을 언급하며 하루 약 1조원 수준의 가치가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파업이 이어질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노동자들의 기여도를 부각했다.

삼성전자 과반노조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이날 오후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오후 2시까지 사전집회를 진행한 뒤 3시까지 본집회를 가졌다.

최 노조위원장은 외부에서 제기되는 ‘과도한 요구’라는 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이공계 인재들이 가장 중요한 미래 산업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다”며 “반도체는 AI와 전자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하

는 핵심 산업인데, 이 분야에서 일하는 인재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누가 그 미래를 책임지겠냐”고 강조했다.

노조는 회사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사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전년(5.1%)보다 높은 6.2%의 임금 인상률과 자사주 지급, 셀러리캡 상향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측이 요구하는 성과급 산정방식 변경 및 상한 폐지는 경영 환경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측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투쟁 현장에 참석한 조합원 정모씨는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 등 회사의 핵심가치가 하나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직원들은 그동안 노조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집회에 나선 이유를 회사가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쯤에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소속 일부 회원들이 노조측 집회 장소 인근에서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과하다며 반대 집회를 갖고 해산하기도 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주주배당이 11조원에 불과한데 직원 성과급으로 40조원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회사는 임금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



metro

교보생명의 이웃사랑이야기 '황제펭귄' 편

생명보험은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서로를 껴안고 위치를 바꿔가며 체온을 유지하는
황제펭귄의 허들링처럼

생명보험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어려움을
이웃과 함께 이겨내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KYOBO 교보생명